순천시청 유도 박다솔·강유정 "도쿄 올림픽행 청신호"

2019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
각 체급 금메달 획득 "올림픽서 반드시 메달 획득" 각오
순천시청 입단 예정 ·63kg급 한국체대 김지정 동메달

박다솔과 강유정(이상 순천시청)이 2019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0년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도쿄행의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김양호 감독과 왼쪽부터 강유정, 김지정, 박다솔. /전남도체육회 제공

박다솔과 강유정(이상 순천시청)이 2019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0년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도쿄행의 청신호가 켜졌다.

박다솔은 지난 4일부터 충남 보령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여자 일반부 ·52kg급 결승전에서 '평생의 유도 동반자이자 라이벌'인 정보경(안산시청)에게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으로 제압하고 천금 같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유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박다솔은 여독이 채 가시기 전에 국내 전국대회 및 대표선발전에 출전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도쿄행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강유정도 여자 일반부 -48kg급에서 '금빛 업어치기'를 선보였다.

강유정은 결승전에서 오윤주(한국체대)를 맞아 적극적인 공격에 따른 상대의 지도 3개를 등에 업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유정 역시 이번 대회 금메달 획득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이 한층 유력해졌다. 이와같이 순천시청 유도팀이 지방자치단체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출난 우수선수를 보유함과 아울러 우수성적을 거양한데는, 허석 순천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체육회의 후원과 관심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팀 감독은 "선수들이 그동안 힘든 훈련을 이겨내줬기 때문에 그 땀방울의 결과가 금메달로 증명됐다"며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해 꼭 도쿄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순천시청 유도팀 입단 예정인 여수정보과학고 출신의 김지정(한국체대 4년)은 여자부 ·63kg급 준결승에서 한희주(용인대)에게 패하며 아쉽게 동메달 획득에 만족했다.

/오복 기자 boh@

챔피언 광주FC, 최종전서 유종의 미 거둔다

9일 오후 3시 대전 월드컵경기장서 대전과 맞대결

K리그2 챔피언 광주FC가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광주는 오는 9일 오후 3시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하나원큐 K리그2 2019 36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 우승과 함께 승격을 확정지으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또 K리그2 최다 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최다 승 및 최다 승점(현재 21승, 73점) 등 수 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숱한 기록을 만들었지만 광주의 기록 경신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승리와 함께 개인 기록 경신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펠리페와 이으뜸이다.

K리그2 득점왕 경쟁이 뜨겁다. 올 시즌 꾸준히 득점 선두를 지켜온 펠리페(19득점)가 부상과 징계 등으로 출전하지 못한 사이 치솜(수원FC, 18득점)이 1골 차로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펠리페는 대전전 다득점과 함께 득점왕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또 1골만 더 추가할 경우 2016년 정조국(현 강원FC)이 기록한 한 시즌 최다 득점인 20골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펠리페는 지난 라운드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득점왕과 기록을 향한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으뜸도 마찬가지다. 현재 5골로 2001년 고종수가 기록한 한 시즌 프리킥 직접 득점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1골을 추가할 경우 안드레(2000년), 뽀뽀(2006년)와 공동 1위에 수비수 최초 기록이 된다. 기분 좋은 기록이 눈 앞에 있는 만큼 대전전에서 날카로운 발끝으로 골문을 조준한다.

광주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대전전에 나선다. 지난 34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임민혁, 엄원상, 김정환 등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 경쟁력 입증과 함께 전술의 다양성까지 확보했다. 출전수가 적었던 선수들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가 대전과의 최종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복 기자 boh@

"1부리그로 가즈아~!"

광주FC가 K리그2 우승 세리머니로 K리그1 승격 기쁨을 누렸다. 조기에 K리그2 우승과 K리그1 다이렉트로 승격 확정했던 광주는 경기 후 우승 세리머니를 통해 기쁨을 누렸다. /광주FC제공

화순중 김명인·박성주 국제배드민턴대회 남자 복식 우승

화순만연초 김지은 여자복식 준우승… 제일초 이지호 남자단식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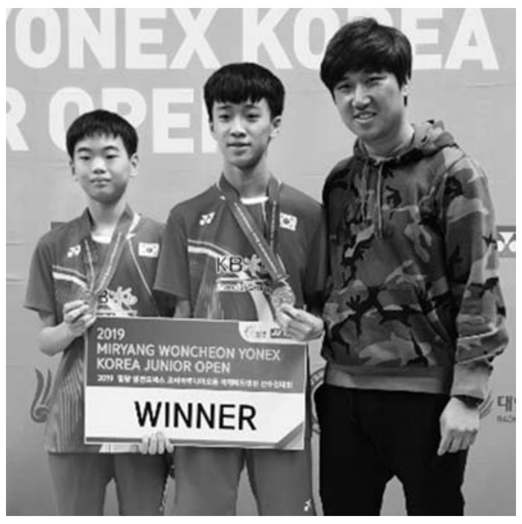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8일간 밀양시에서 열린 '2019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이하 대회)'에서 화순중학교 김명인 선수와 박성주가 복식 정상에 올랐다.

대회는 13세, 15세, 17세, 19세 이하로 나눠 연령대별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으로 진행됐다.

김명인·박성주 남자복식팀은 15세 이하 남자 복식 결승에서 최민규·김성훈 선수를 맞아 첫 번째 게임을 21:15로 이긴 뒤 두 번째 게임도 21:14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3세 이하 여자 복식에서는 김지은(화순만연초) 선수와 정민교(청송초)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지호(화순제일초) 선수는 남자단식 3위를 올랐다.

배드민턴 주니어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넥스코리아가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2019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국내 유일의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 주니어 대회다.



지난달 27일부터 밀양시에서 열린 '2019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화순중학교 김명인 선수와 박성주가 복식 정상에 올랐다. /화순군 제공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개국이 참가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